

한라산의 위대한 정기 인쇄업체로 전해지길



제주! 이름만 들어도 기분 좋은 그곳에 우리 인쇄인들이 함께 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설레었다.

제주도로 출발하는 13일 아침 일찍 아침식사도 먹는 등 마는 등하며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 도착해보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고 출발시간이 가까워 오자 5백여명의 조합원들이 공항 대합실을 온통 메우고 있었다. 이미 김포공항은 단순한 모임장소가 아닌 인쇄인의 축제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인쇄인들은 서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이미 제주도를 다녀온 분들은 그곳에서 벌어진 갖가지 신기하고 재미있는 사건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또 한편에서는 제주에서의 2일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보낼까 삼삼오오 모여 의논하고 있었다. 웃음과 덕담이 오가는 가운데 집행부원들은 시간별로 비행기 출발시간을 맞추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드디어 제주도로 떠나는 시간. 필자는 비행기 탑승구에서 진행되는 배낭과 내용물 점검에서 걸리고 말았다. 과일 깎는 과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문제였다. 하는 수 없이 공항직원에게 주고 가벼운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에 오르자 제주도에 간다는 실감이 났다.

아름다운 낭만의 도시 제주도에 간다는 생각에 푸른 하늘만큼 내 마음도 맑고 상쾌했다. 그렇게 1시간 여를 날았을까? 비행기는 어느덧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목적지로 가기 위해 관광버스 9호차에 몸을 실었다. 순수하고 맑은 눈빛을 가진 안내원이 제주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재미있는 에피소드에 우리 모두는 웃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중간 예정지인 몽골서커스장에 도착했다. 서커스에는 아직도 엄마의 품을 좋아할 듯한 어린 아이들이 묘기를 펼치고 있었다. 유연한 몸매로 각종 서커스를 보여주는 그들에게 우리는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힘껏 박수를 쳤다.

그렇게 웃고 감탄하는 사이 시간이 흘러 다음 행선지로 자리를 옮겼다. 전 세계 볼거리를 한자리에 모아놓은 '지구촌 미니 어처 세계, 미니월드'가 그곳이다. 미니월드는 유럽과 아시아, 미국, 남미대륙까지 세계의 주요 볼거리를 실물과 똑같은 모양으로 꾸며놓은 제주도의 새로운 관광명소이다.

북경의 자금성과 파리의 에펠탑,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세계 각국의 유명한 건축물을 이해하고 세계 문화유산을 체득할 수 있는 장소였다.



한꺼번에 전 세계를 체험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며, 실감나게 묘사한 모험 물을 보면서 새삼 또 놀라고 다들 감탄사를 연발하며 사진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후 숙소에 여장을 풀고 세미나 장소에 집결했다. 세미나에 앞서 개최된 임시총 회에서는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인쇄조합과 서울경인쇄조합의 통합안이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두 조합의 이사장이 서로 손을 맞잡고 웃으며 답례할 때 필자는 물론 이고 전 조합원이 탄성을 지르며 뜨거운 박수로 환영의 뜻을 전달했다.

이번 통합을 계기로 우리 조합원 모두가 합심단결해 우리의 의견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어려운 인쇄업계에 희망의 빛이 비추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았다.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조용국 대한인쇄연구소 고문이 '인쇄업계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신재용 한의학 박사가 '체질과 음식조합'에 대해 각각 강의했다. 특히 신재용 박사가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잘 해주어 우리는 웃고 또 웃으며 끝까지 경청했다.

이후 시간이 다되어 아쉬움을 뒤로하고 저녁식사 장소로 이동하면서 창밖에 내리는 비를 감상했다. 제주에서 맑은 첫 번째 밤은 비와 함께 시작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비였다. 저녁식사를 위해 서귀포로 이동한 조합원들은 회 등을 먹으면서 그동안 쌓였던 회포를 풀면서 마음껏 대화를 나누었다. 13일의 저녁은 이렇게 서서히 어둡속으로 깊어갔다.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각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4일 새벽 잠에서 깨어 창 밖을 보니 제주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관 그 자체였다. 비는 어느덧 그쳐 하늘은 맑고 깨끗하게 개어 있었다. 밤사이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한라산 등반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기우에 그치고 말았다. 정말 다행이었다.

누구보다 14일 아침 일찍 일어나 콘도 창을 열고 하늘을 보고 저 멀리 푸른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느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백록담을 볼 생각에 아침식사로 제공된 해장국을 맛있게 푹푹 해치우고 등산코스도 선택한 성판악 지점으로 삼삼오오 모였다. 성판악코스는 한라산 등반코스 중 평탄하고 무난한 코스로 등반길이가 긴 반면 등산로가 비교적 평탄하다.

성판악코스에 모인 사람은 모두 41명. 서로 서로를 독려하며 한라산 등정을 시작했다. 평탄한 코스를 선택했기 때문인지 41명 전원이 아무 큰 탈없이 백록담 물과

한라산 바람을 만끽할 수 있었다. 백록담에서 나눠먹은 술 한잔은 감동의 극치였다. 맑은 바람과 물은 쌓였던 피로를 깨끗하게 날려주었다.

밑에서 보는 한라산은 한껏 부드러운 여성의 이미지로 다가오지만 정작 한라산에 올라보니 산 전체가 아주 험난하고 위대한 남성의 모습 같았다. 웅장하고 서구적인 멋을 가진 산, 맹수가 없는 대신 그 자신이 더 큰 맹수가 되고 있는 한라산은 남자라면 한번은 꼭 가봐야 할 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아름다운 곳에 41명만 함께 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 높고 높은 곳에 우리 조합원 5백여명이 다함께 동참하였다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이곳 백록담에서 필자는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 강산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인쇄업계는 왜이리 힘이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야호~' 외침에 모든 나쁜 기운은 나가고 좋은 기운만 들어오길 기원했다.

정상 등반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우리 41명은 하산을 하면서 저 멀리 펼쳐진 바다와 목장, 드넓은 초원, 도시 모두가 시원스럽고 아름답게 보였다. 아름다운 풍경도 좋았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내려오는 모습은 정말 더욱 아름다웠다. 다만 내려오면서 대원 중 두 명이 발목에 무리가 생겨 아쉬움이 남았으며, 아무쪼록 빨리 나아서 다음 만남에서 웃으며 추억담을 나누었으면 한다.

등산에 애써주신 전문 산악인 김승호 사장과 조합직원, 41명 회원 여러분 제주도의 기억에 함께 해서 감사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평생 간직되시기를 바랄 뿐이다. 건강하세요!



김성현 · 동우회 대표